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1호 [루계 제25640호] 주제 106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자

영광의 땅에서 첫 모내기 시작

상반년계획수행단위들이 늘어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으로 구주대로 과학농사법들을 일으켜 계획한 알짜생산목표를 힘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땅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뜻깊은 출발은 출발의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전쟁의 포화가 출부했던 주제 41(1952)년 5월 10일 이후 새벽에 대체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함께 풍물꽃은 출발을 봄에 했으셨다.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해마다 이달을 맞으며 뜻깊은 토전에서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농장원들은 경제건설의 주력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일은 자각을 알고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5개년전략수행의 학교한 전망을 염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전두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출보전비로 봄에 했으셨다.

평원군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장을 기록지게 칠구하였다.

농장에서는 신초부터 높이 세운 알짜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명하기 위해 휴관기를 비롯하여 농사비리를 확실히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비로, 박막을 비롯한 영농기술들을 네너히 펼쳐 하기 위해 밭이 많도록 뛰어뛰면서 이 신작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리고 놀 험동벌에서 살다시피 서는 모든 농장원들이 시기별에 따른 영농과제들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도록 힘으로써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하여 하나같이 실한 모를 키워냈다. 그리하여 뜻깊은 날을 맞으며 첫 모내기를 하게 되었다.

보내는 기제의 경제한 일꾼들은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농가들이고 벼도 쌩쌩리기와 모기로기로 착실하게 빼내갔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알짜생산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 걸 같이 펼쳐나온 일군들은 서로 돋고 이풀면서 한포기 한포기 정성을 다해 모를 내고 있다.

기제화작업반에서는 모내는 기제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를 믿음없이 하여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울

원화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은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농가들이고 벼도 쌩쌩리기와 모기로기로 착실하게 빼내갔다.

보내는 기제의 경제한 일꾼들은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농가들이고 벼도 쌩쌩리기와 모기로기로 착실하게 빼내갔다.

기제화작업반에서는 모내는 기제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를 믿음없이 하여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울

해에 중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향경같이 펼쳐나온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내기 첫시작부터 기세를 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그나쁜 궁지와 기운을 개선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새 기준, 새 기제를 창조하기 위한 기세를 향상하고자 힘을 더하고 있다.

종합련사단에 의하면 5월 7일 현재 헌법기업소적으로 4개의 청년돌격대와 6개의 제한종대, 13개의 굴진소대가 상반년 계획수행을 달성해 완수하는 저항에 힘을 쏟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혁철



사상전의 포성으로 집단주의 경쟁열풍을 세차게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 준공식 진행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 준공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학생들에게 헌법기업소으로 대체한 청년돌격대와 6개의 제한종대, 13개의 굴진소대가 상반년 계획수행을 달성해 완수하는 저항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경양현회원회 일군들은 어려운 과제가 나설 때마다 행정일 군들과 함께 청년돌격대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김정숙령 양재사과농장 당조직에서는 매일 당세포별로 혁명사적교양과 연예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농장선동활동을 광세적으로 벌리고 있다.

성과를 비롯한 시인의 당조직들은 일군들에게 강원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토포현집을 대한 시정사업을 조직하였다. 그 후에도 매주 한 번씩 일군들에게 강원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토포현집을 대한 시정사업을 조직하였다. 그 후에도 매주 한 번씩 일군들에게 강원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토포현집을 대한 시정사업을 조직하였다.

김정숙령 양재사과농장 당조직에서는 매일 당세포별로 혁명사적교양과 연예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농장선동활동을 광세적으로 벌리고 있다.

성과를 비롯한 시인의 당조직들은 일군들에게 강원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토포현집을 대한 시정사업을 조직하였다. 그 후에도 매주 한 번씩 일군들에게 강원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토포현집을 대한 시정사업을 조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공장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게 되었다.

시인의 당조직들은 지금까지 27개의 공장들이, 시적으로는 60여개의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2)

캄캄한 밤 하늘에 솟아오른 조선의 별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엽 우리 나라의 반민족주의자와 망국사에 관한 자료들과 함께 밤밀민족방문동의 박물관 지도자인 김형길선생님의 헌정무관자료가 전시된 1호실 창문에 이어 다음으로 밤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친한한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어이하여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단다.

우리 조국강토의 지정학적 위치때문인가, 산천경계 수려하고 금운보화 가득하기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우리 고려에게 애국애족의 마음이 부족해 서였는가.

아니다.

근면하고 숨기롭고 강의한 우리의 민족은 조상대대로 변함없었지만 그 인민을 이끌어 나온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여 걸출한 위인,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수령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대대문이었으며 대경사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탄생 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주체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찬사를 함께 2호실에 들어서니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끌어당겼던 10대 수령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지은 『입국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장을 읊기시였다.

당국은 순간이고 북국은 천년이라는 역사의 전리도 있지만 나파찾는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의 앞길에 그 얼마나 험한 가시덤불길이 아파서고 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중증처럼으로 가로놓이기는 가를 당시에는 누구도 알리 없었다.

하지만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험로여경의 그 길에 걸연히 나서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심장에 새기며 다율벽면의 사적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는 최전기의 전경사진앞에 이르렀다.

높낮은 산발들을 배경으로 크고작은 셀들을 치마를 맞대고 털어 앉은 거리의 옛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로 정희를 자아내게 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강도 일세의 칼도미우에 올라 몸부림칠 때 쌔움의 길에 나섰던 애국자들은 많았지만 무정을 이끌어 올 탁월한 영도자가 없고 물지 려고 해도 단결의 중심이 없어 혁명이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1920년대 종업이었다.

민족이 가슴치며 애쓰며 바라고 부른것은 도란에 빠진 조선의 운명을 구원해줄 청세의 위인이었다.

강의 한 달역과 의지로 눈보라 휘

풀어지는 천고의 밀림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를 떠나 신지 13일째 되는 날인 주제 14(1925년) 2월 3일 마침내 조령 나루터에 이르렀다.

복이 백자도 뵈나마나한 강만 건너면 팔도구시가이고 그 강안거리에 어머니인 계시는 절이 있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선陀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었다. 이 땅을 하직하면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보겠는가 하는 걸출한 심성으로 조국산선을 멀리하고는 우리 수령님께서는 주제 15(1926년 6월 화제)으로

바로 이 땅 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의 피타는 열망과 어머니나녀를 찾아야 한다고 하신 계시는 유언을 새기 시며 주제 15(1926년 6월 화제)으로

가시여 화성의 숙에 입학하였다.

선진사상을 탐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 화전에 서 험행활동을 벌리실 때 계시던 절과 화성의 숙의 기숙사와 경, 기숙사내부를 보여주는 사진과 조선의 낫과 밤들을 그려보았다.

우리는 사적자료들도 보고 강사의 해설도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이어가신 탄구의 낫과 밤들을 그려보았다.

선형운동기구를 찾으려고 암록강을 건너는 그 당시에 한 구성을 뚜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태도제 국주의 동행)으로

변면종심에는 그날의 강동적인 장면을 읊어주는 영상미술작품으로

제작되었다.

강사의 이야기는 혁명의 수령을 발달에나가면서 활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미를 안겨주고 있었다.

라도제 국주의 동행의 활동규모를 보다 넓은 지대에로 확대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영상미술작품 아래에는 태도제 국주의 동행의 당시파과 흥족적 특징으로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교표가 부각되어있어 당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듯

웃음을 들려왔다.

라도제 국주의 동행의 결심은 스스

로 헌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암록강을 건너는 그 당시에 한 구성을 뚜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태도제 국주의 동행)으로

변면종심에는 그날의 강동적인 장면을 읊어주는 영상미술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우리는 무중에서 전쟁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강안파의 흥족적 특징으로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제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소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주제 15(1926년 12월 15일 새날로)으로

의동행 책임자로 모실것을 제의하고 모두가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한 새 세대 새 세대 밤행령들이었다.

그이를 알게 된것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지체험을 통하여 『E. D.』의 산아를 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행회를 지도하시면서는 영상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자료, 사진자료, 회상자료, 사적물을 보여주는 사진과

바로 유례한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김필은 공산주의 운동자를 위해서 제노라고 하는 인사들과 친 친족을 찾아 보니 그들은 청년들을

보니 그들이 높은 청년들을 찾았던 것이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화성의 속지점 우리 수령님의 혁명 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던 김시우선생의 사진도 있다.

그이를 알게 된것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지체험을 통하여 『E. D.』의 산아를 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 청년동행회를 지도하시면서는 영상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자료, 사진자료, 회상자료, 사적물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이의 명성이 날을 따라 높아가자 더 많은 청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력독서조직, 조선인류집합학우회 등 혁명조직들에 몰려되어 새 세대의 청년혁명가들로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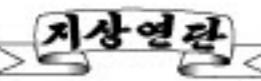
이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16(1927년 8월 『E. D.』)으로

세계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자료, 사진자료, 회상자료, 사적물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이를 알게 된것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지체험을 통하여 『E. D.』의 산아를 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행회를 지도하시면서는 영상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자료, 사진자료, 회상자료, 사적물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이의 명성이 날을 따라 높아가자 더 많은 청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력독서조직, 조선인류집합학우회 등 혁명조직들에 몰려되어 새 세대의 청년혁명가들로 자랐다.

그이를 알게 된것은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지체험을 통하여 『E. D.』의 산아를 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행회를 지도하시면서는 영상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자료, 사진자료, 회상자료, 사



모두가 만희마기수, 만희마선구자가 되자!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갈 드높은 열의 당중앙의 권위를 과학기술로 결사옹위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끌어 밟으시기고 인민의
학원을 일떠세우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 5월 2일부 『로동신
문』에 실린 기사 『만리마시대
의 첫 선구자·직업인』을 출장길
에서 읽으며 내가 날아인은 충
격은 참으로 커졌다.

기사에서 숨되어있는것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목표
를 내세우고 최단기간에 점령
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
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용소대의
무비는 전투는 더불어 아름다
워데 한 장군님과 옛은 정유
미를 저지하고 당중랑파
성장의 빅 동을 같이 해나가는
열왕 같은 충정에 원천을 두고
있다.

《평양에서 천여리나 떨어져
있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깊은 땅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장군님 생각만 하면
탕중왕뜨락 바로 간에 우리
일가가 있고 위대한 장군님을
언제나 불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광부라는 홍보에 유통망을
지운 것입니다. 그런 뻔한 동영상을
이따로 필요없습니다.》

소대선동원으로 토목용 품
식동과 한 이 말은 우리 제작
소 전체 집단의 심정이기도
하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
기에서 우리 제작소를 최첨단으로
기지로 우리 주민분도, 몸소 우
리 제작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파악기술로 무장 조국건설을
만성하는 자랑한 성과를 달성하
았다.

우리 장군님 그대로 이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밀을 사랑
은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정진영 원장의 태양의 빛발이
있기 위해 우리 제작소는 과학기
술의 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높
이 울리며 나와의 저강력을 끈

흔히 다지기 위한 철단을 파견
의 열풍, 국산화의 열풍을 더
욱 세차게 일으켜가고 있는 것
이다.

꼿꼿은 울해에만도 우리들은
제작소에서 개발한 소자를 희
하여 20대의 후대용 토양수분
측정 기를 개발해 입함으로써
금수산태양광전을 주제의
단호하게 청주시비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

기 위한 두정의 선두에는 다른
나라에 더 유익한 품질을 끌어
들으며 여러 수단기지들에서 탐
의 속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기
여하게 걸 새롭고 특색있는 기
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파악기술로 무장 조국건설을
만성하는 자랑한 성과를 달성하
았다.

하나하나의 파악연 구성 파
들을 이복으로 험난히 넘과
면 대원 한 장군님과 맷은 정
을 승리의 보고로 떠나고자
이어 가는 고경찬영용소대의
두정이 아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가 더욱 가슴을 쪘게 넣은 것
이 있다.

첨단돌파의 초행길을 끊임없
이 이어가야 하는 오늘의 총출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 류성은

격진이 아밀로 단순한 과학탐구
의 길이 아니라 당의 권위보위
전,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역할
의 신념이다.

우리 용화국을 만대하는 제
국주의자들에 적대세력들의 야
만적인 제재압박에 동을 세계를
압도하는 주제 과학기술상으로써
국제적 위상으로 더 칠 꾸려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경사로운 태양열을
끌어들으며 여러 수단기지들에서 탐
의 속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기
여하게 걸 새롭고 특색있는 기
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파악기술로 무장 조국건설을
만성하는 자랑한 성과를 달성하
았다.

우리들은 기적적인 광물증산
으로 탕중왕릉을 걸사워운 환경
으로 영웅소대들의 두정청진을
분만아 당시의 품속에서 다져온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품발시
켜 대발적이며 런방적인 과학기
술연 구성과 함께 입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끌어온 승리의 영에 품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이
하였다.

《동무는 만리마을 했는
가?》라는 시대의 품을 되새
기며 아간에도 새 기록, 새 기준
장조의 청단적경열봉을 일으
켰다. 날로 높아지는 선수들의
영의 맞게 협회에는 감독,
연구사들과 지혜의 힘을 합치면
서 두정으로써 훈련수단과
방법을 받아쓰이기 위한 사업을
직극 따라해왔다.

하여 끽들은 울해에 현정선
회에 참가했던 우리 학기선수들
의 대다가 국제경기경험이 없
되도록 폭넓히기 위한 품을 제육
강국부문에서는 훈련장을 제육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을 품을 완성하며 제
경기전법으로 영웅조선의 새로
운 체육신화를 펼여나와 창조하
여 아시아의 괄판, 세계평원
을 겨우로 하여야 합니다.》

제일의 영웅광부, 새 세대 만
리마선구자들을 단 및 달동안에
기념내며 넓은 계획을 짚고 있는 것
이다.

꼿꼿은 울해에만도 우리들은
제작소에서 개발한 소자를 희
하여 20대의 후대용 토양수분
측정 기를 개발해 입함으로써
금수산태양광전을 주제의
단호하게 청주시비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

기 위한 두정의 선두에는 다른
나라에 더 유익한 품질을 끌어
들으며 여러 수단기지들에서 탐
의 속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기
여하게 걸 새롭고 특색있는 기
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파악기술로 무장 조국건설을
만성하는 자랑한 성과를 달성하
았다.

우리들은 기적적인 광물증산
으로 탕중왕릉을 걸사워운 환경
으로 영웅소대들의 두정청진을
분만아 당시의 품속에서 다져온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품발시
켜 대발적이며 런방적인 과학기
술연 구성과 함께 입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끌어온 승리의 영에 품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이
하였다.

《동무는 만리마을 했는
가?》라는 시대의 품을 되새
기며 아간에도 새 기록, 새 기준
장조의 청단적경열봉을 일으
켰다. 날로 높아지는 선수들의
영의 맞게 협회에는 감독,
연구사들과 지혜의 힘을 합치면
서 두정으로써 훈련수단과
방법을 받아쓰이기 위한 사업을
직극 따라해왔다.

하여 끽들은 울해에 현정선
회에 참가했던 우리 학기선수들
의 대다가 국제경기경험이 없

되도록 폭넓히기 위한 품을 제육
강국부문에서는 훈련장을 제육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을 품을 완성하며 제
경기전법으로 영웅조선의 새로
운 체육신화를 펼여나와 창조하
여 아시아의 괄판, 세계평원
을 겨우로 하여야 합니다.》

올해 4월에 전개된 2017
년 세계청소년역기선수권대회
와 2017년 아시아역기선수권대
회에 참가했던 우리 학기선수들
의 대다가 국제경기경험이 없

되도록 부족한 선수들이었다.

이미한 조건에서 대회준비기
간 우리 역기협회에서는 선수들
의 경진력 발동을 위한 사업에
불을 질었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동무는 만리마을 했는
가?》라는 시대의 품을 되새
기며 아간에도 새 기록, 새 기준
장조의 청단적경열봉을 일으
켰다. 날로 높아지는 선수들의
영의 맞게 협회에는 감독,
연구사들과 지혜의 힘을 합치면
서 두정으로써 훈련수단과
방법을 받아쓰이기 위한 사업을
직극 따라해왔다.

감독, 선수들의 정신력을 쇠
대로 폭넓히기 위한 품을 제육
강국의 품을 험당하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조국수호의
직전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체육과학의 힘으로써 훈련수
단과 선수들을 더 많이 만들고
나아가 온몸에 끌어넘치는 애국
정신으로 대우수들모두가 금
운, 등에 달을 생활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렇다. 고경찬영용소대의 품
의 보여주고 우리 실천을
통해 절감한 듯이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가 따로 경해져있
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으로 회화해
나서고 온몸에 끌어넘치는 애국
정신으로 대우수들모두가 금
운, 등에 달을 생활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감독, 선수들의 정신력을 쇠
대로 폭넓히기 위한 품을 제육
강국의 품을 험당하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조국수호의
직전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체육과학의 힘으로써 훈련수
단과 선수들을 더 많이 만들고
나아가 온몸에 끌어넘치는 애국
정신으로 대우수들모두가 금
운, 등에 달을 생활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만리마기상으로 비약하는 조
국의 명예가 자기에게 달려있
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주는 사
상공식의 불비란속에 선수들 누
구나 강도높은 훈련과 품을 수행
하기 전에는 참자리를 찾지 않
았다.

</div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빼속깊이 새기자

우리 사는 나라 세상에서 제일

수도 한복판에 황홀경을 펼친
여명거리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다 세일먼저 찾아보는 70층짜
리 초고층아파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천의 더러가신 이 멋쟁이아빠트
에 행 복의 보금자리를 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
들 가운데에는 곱은 교원인 출신
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심의 우리 사회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
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
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
중을 위하여 봉투하는 잠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
명으로 생활로 젊이 뿐내려
면 불쾌한 사회주의이다.』

우리는 최종식동무와 만난 기
회에 그가 받은 세 치과 카랑형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의 가
족은 어느 한 출판사에서 토론자
로 일하는 안해와 유치원생인 5
살 난 딸에게 봄과 새싹구이
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훌륭한
기구들을 고루고루 갖춘 백수십
만원의 당시를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수백
만달러를 빌려온 후 고금은 차
운데는 안겨주는 초고층아빠트
의 4 2층에 당시처럼 봄과 새싹
의 봄을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최충식동무는
자기에게 체험한 일들에 대하여 이
야기하였다.

그는 몇 해 전 어느 한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은 대회에 실습을
나간적이 있었다. 나라의 혜택으
로 돈 한푼 내지 않고 외국실습
을 한 그 나라이 그는 어려운 서
류상이 지나도록 저지도 들지도
못한 많은것을 체험하였다.

그 종에서도 집문제였다.

도시는 면화하고 거리들은
갖가지 도양의 건물들과 살림
집들로 꽂아들였지만 실지 차
기 짚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나
없었다. 주민들 대부분이 세집
에서 살고있었다. 그와 풍물연
구를 하면 그 나라 교원, 연구
사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서
직한 나이가 다되어서야 한생
도록 모든 걸 헤아려 장
비용을 다 마련하지 못하면 흥
락을 하고 마저 돈을 벌고 하였
다. 결국 4년째에 대회를 5~
6년이 되도록 출연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소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
자살립집에서 사는 재료파학부
강좌장인 박사 부교수 유후진
부도 자기 역시 여러해전에 자본
주의나라에 가서 5년동안 실습
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
주의가 얼마나 좋은가를 계부로
걸고자 하였다. 하면서 많은 이야
기를 들려 주었다.

장관도의 산불인 강강군에서

나서자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행복에 대해서도

제일로 끌어들여온 것이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에서는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빠르고 청렴하게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처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온 풍물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농정이 제시된 때로부터 어느덧 한해가 흘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의 힘을 활용 자주적으로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투철한 민족자주연단에서 우리 민족이 끌고나간 불멸의 조국통일로선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업의 일위업의 휘황한 앞길을 엎어주신 경애하는 천수님에 대한 한마음은 흠토의 열기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원리로선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민족자주연단, 평화보장과 편방제실현을 우리 당의 최고무통한 선언으로 확고무동한 조선로동당으로 전면화하고 조성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천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민족자주연단, 평화보장과 편방제실현을 우리 당의 최고무통한 조선로동당으로 전면화하고 조성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거래의 힘을 활용 자주적으로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투철한 민족자주연단에서 우리 민족이 끌고나간 불멸의 조국통일로선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업의 일위업의 휘황한 앞길을 엎어주신 경애하는 천수님에 대한 한마음은 흠토의 열기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원리로선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민족자주연단, 평화보장과 편방제실현을 우리 당의 최고무통한 조선로동당으로 전면화하고 조성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주연단에서 우리 민족이 끌고나간 불멸의 조국통일로선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민족자주연단, 평화보장과 편방제실현을 우리 당의 최고무통한 조선로동당으로 전면화하고 조성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원리로선입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의

나미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술기 끊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슬기와 지혜, 힘을 모두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에 향해 나아온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업의 일위업의 휘황한 앞길을 엎어주신 경애하는 천수님에 대한 한마음은 흠토의 열기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조국통일 위한 두정에서 민족자주연단의 가치를 높이고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민족자주연단은 조국통일운동의 생명 선이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빙고 민족자주연단에서 민족자주연단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주연단의 단합을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민족이 조국통일의 기초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내외부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는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치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쟁방에 걸친 정치세력은 누구나 민족자주연단의 대립으로 치달아야 한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힘을 알게 놓고 사상과 비법, 정직의 차이를 조율하여 한마음을 풀어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내외부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는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치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쟁방에 걸친 정치세력은 누구나 민족자주연단의 대립으로 치달아야 한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힘을 알게

위업에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과와 귀중한 전통이 있다.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민족적방식이 남아 있고 조국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해온다면 주제없이 손을 잡고 통일에 국가의 길에 헌신한 사람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온 거래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잘 라하고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외세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체는 온 거래를 차별없이 한풀에 아버주고 해마다 조국통일로선을 민족자주연단의 원칙에서 민족자주연단으로 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두정에서 민족자주연단의 가치를 높이고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민족자주연단은 조국통일운동의 생명 선이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빙고 민족자주연단에서 민족자주연단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주연단의 단합을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

저한 제단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흑백으로 보고 무모하게 조국통일로 말소통을 중지해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대전쟁장을 벌여내 전쟁의 길을 떠난다면 차례로 것은 처절한 죽음과 멀티분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하며 그에 따라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외세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체는 온 거래를 차별없이 한풀에 아버주고 해마다 조국통일로선을 민족자주연단으로 펴나가야 한다.

나미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술기 끊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조국통일의 가치이며 조국통일에서 민족자주연단을 확립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두정에서 전 민족의 대단결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기초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내외부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는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현장평생식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치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쟁방에 걸친 정치세력은 누구나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힘을 알게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은 면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자 한 글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과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변함없이 힘을 쏟고자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과 세계 앞에 서약한 협약을 지키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미 자체로 조국통일을 향하는 한마음도 나마

하며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면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자 한 글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과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변함없이 힘을 쏟고자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과 세계 앞에 서약한 협약을 지키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나미 자체로 조국통일을 향하는 한마음도 나마

하며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면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자 한 글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과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은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온갖 대립과 부딪침으로 북남관계는 사상과 제도에 빠져 있다. 오늘의 한글작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은 조국통일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바

로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상대방